

No. 2013-11

#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3. 11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삼성전자와 샤프, 라이벌에서 협력관계로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 ① 일본경제지표

### □ 주요 경제지표

- 2012년 4/4분기 GDP성장률은 ▲0.4%로 3/4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었고, 연간으로는 1.9% 기록
- 2012년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7조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1월에는 월간으로 사상 최대인 1.6조엔 적자를 기록
  - \* 2012년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16.7천억엔으로 축소
- 2012년 해외직접투자는 對세계, 對한국 모두 2011년보다 증가
- 2012년 경상수지는 4.7조엔으로 2011년보다 흑자폭이 대폭 축소
- 2013년 2월 평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93.2엔, 3월 11일 기준 96엔

구분	2011	2012	2012						201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1.9)	▲3.5			▲0.4			-	-	
수출(천억엔)	653	(637)	53	50	54	51	50	53	48	-	
수입(천억엔)	697	(707)	58	58	59	57	59	59	64	-	
對한국 수출	52.1	(49.1)	3.96	3.85	3.98	3.94	3.93	4.35	4.01	-	
對한국 수입	32.9	(32.4)	2.78	2.44	2.42	2.70	2.82	2.84	3.12	-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287			339			-	-	
對한국 투자	(24)	(40)	4.9			9.4			-	-	
소비자물가(%)	0.0	(0.0)	▲0.2	0.2	0.2	0.0	▲0.3	▲0.1	▲0.3	-	
실업률(%)	4.5	(4.4)	4.3	4.2	4.3	4.2	4.2	4.3	4.2	-	
경상수지(천억엔)	76.2	(47)	6.3	4.5	5	3.8	▲2.2	▲2.6	-	-	
엔화	對미달러	79.1	(80.1)	79	78.7	78.2	79	80.9	83.6	89.2	93.2
환율	對원화	(1,391)	(1,413)	1,446	1,438	1,439	1,401	1,344	1,288	1,197	1,166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7	12.7	12.7	12.8	12.7	12.7	12.7	12.7	-	
은행대출금리(%)	1.48	-	1.40	1.40	1.38	1.38	1.38	1.36	1.36	-	

주1) (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 주요 연구보고서

- 『일본의 신성장 패러다임 : 대일 FDI의 실증분석』 경제산업연구소, 3월2일
  - \*출처:<http://www.rieti.go.jp/en/special/policy-update/047.pdf>
- 『산업경쟁력과 시스템화 관련 조사보고서』 과학기술진흥기구연구개발전략센터, 3월5일
  - \*출처:<http://crds.jst.go.jp/singh/wp-content/uploads/12rr01.pdf>

## ② 주간경제이슈 : 삼성전자와 샤프, 라이벌에서 협력관계로

### □ 한·일의 라이벌 전자업체간 최초의 자본제휴

- 삼성전자가 일본전자 업체인 샤프에, 이달 중 실시하는 제3차 할당증자를 통하여 약 100억엔을 출자키로 함. 출자비율은 약 3%가 될 전망
- TV와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던 韓日 전자업체들이 자본제휴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생존을 건 글로벌 제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

### □ 삼성전자, 샤프의 최상위 주주로

-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샤프의 제5대 주주,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사업회사로서는 최상위 주주가 될 전망
- 샤프는 2012년 3월, 전자기기의 수탁제조 서비스분야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으로부터 9.9%의 출자를 받기로 합의
  - 그러나 샤프의 주가하락으로 조건변경을 요구해온 홍하이와의 교섭이 암초에 부딪히게 된 채, 이달 26일 출자기간이 도래
- 홍하이가 샤프에 대한 출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샤프는 삼성과의 자본제휴로 신용을 보완하고 경영을 재건시키기 위함
- 샤프는 주력공장인 카메야마 등에서 생산하는 박형TV용 32인치 패널의 일부를 삼성전자에 공급해옴
  - 삼성의 출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TV와 스마트폰 제조용 패널공급을 확대할 방침임

### □ 샤프, 삼성에 패널공급 확대, 삼성은 안정적 조달

- 미국 애플사가 「i폰5」 제조용 패널 생산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등의 사정 변화로 카메야마 공장의 가동율이 50% 이하로 저하
- 샤프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감손처리 등 경영실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도 우려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패널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공장 가동율을 개선,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액정패널사업을 흑자로 전환시킬 방침
- 한편, 삼성은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액정패널을 공장건설 등의 신규 투자를 억제하면서 샤프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게 됨

## □ 샤프로서는 배수의 진

- 그러나 샤프로서는 애플의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와의 이번 제휴가 배수의 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애플과의 사업에서 악영향을 무릅쓰도박이기도 하다는 평가
- 만약 애플이 제품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경계에 나서는 경우, 샤프로서는 거래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샤프의 재건은 삼성과 애플 등 소위 스마트폰 세계 2강과의 제휴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임

## □ 삼성과 샤프,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분야 확대

- 샤프는 액정 및 태양전지 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2013년에 4,500억 엔의 적자를 낼 전망
  - 인원삭감 등을 통해 2012년 10월~12월기에 영업 손익이 흑자로 반전.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12월 시점에서 9.6%로 저하됨에 따라, 자본 확충이 시급해짐
- 삼성과 샤프 양사는 저가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의 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액정패널 외에도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

## □ 韓日간 라이벌 관계에서 글로벌 산업재편의 마중물

- 샤프는 2012년 12월 미국 반도체업체 쿼르콤에서 최대 100억엔의 출자를 받아 태블릿(다기능휴대전화)등에 사용하는 차세대디스플레이를 공동 개발키로 합의
  - 삼성과의 제휴를 계기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면 공모증자 등도 포함한 자본 확충이 쉬워짐
- 韓日 전자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반도체, 액정패널, 리튬이온전지 등의 분야에서 점유율 경쟁을 해옴
  - 일본업체들은 고성능 부품분야에서 항상 앞서왔으나, 엔고/원저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열세로 몰림
  - 이번 제휴는 장기간에 걸친 韓日간 라이벌관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새로운 재편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본경제신문은 보도하고 있음

### 3 경제정책동향

#### □ 에너지절약형 설비투자 지원책 : 투자액의 1/3까지 보조

- 경제산업성이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액의 최대 1/3까지 보조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가 에너지·자원 절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생산라인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2,000억엔을 계상
- 보조 비율은 에너지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자원생산성으로 결정. 대기업인 경우 동 지표가 30%이상 개선되면 투자액의 1/3까지 보조해 주며, 건당 최대 120억엔을 지급
- 경산성은 이번 조치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증산이나 생산라인 개선에 의한 코스트절감으로 기업의 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모태기 경산대신은 “2,000억엔의 보조금은 1조엔을 넘는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 이라고 설명

#### □ 아베노믹스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사회보장지출의 효율화 급무

- 일본 정부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을 합한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2013년도에 GDP대비 6.9%로 악화될 것이라는 시산결과를 발표
  -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2015년까지 적자를 반감하기로 한 국제공약(GDP의 3.2%)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재정건전화는 요원한 상황
  - 2013년도 재정적자액은 33.9조엔으로 일본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시산(GDP의 5.2%, 25.4조엔)치에 비하여 크게 악화. 주된 원인은 긴급경제대책으로서 국제증발을 주된 재원으로 한 국비 10조엔 이상의 2012년도 추경예산임
- 민간연구기관에서는 금융완화나 재정지출을 가속화하더라도, 디플레 탈출은 2015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음
  - 문제는 디플레 탈출을 위해 경기자극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경기하강 요인인 소비세 증세나 세출의 효율화를 추진해야만 하며, 앞으로 2~3년은 사회보장 부문이 세출효율화의 관건이라고 지적
- 단기적으로는, 재정규율을 완화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우선시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로 재정재건을 실현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시나리오
  - 그러나 소비세율이 8% 인상되는 2014년도에는 경기감속과 TPP교섭참가를 위한 농업 지원책 등이 세출압력으로 작용

## 4 일본기업동향

### □ 일본 방위산업, 차세대 전투기부품 수출 현재의 10배 이상

- 일본의 방위업체들이 무기수출 3원칙이 풀리면서 F35전투기 제조용 부품수출이 허용됨에 따라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스가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 F35와 관련하여, 분쟁당사국에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로 일본기업의 부품제조 참여를 허용하는 담화를 발표
  - 이번 담화는 美日방위기술협력의 심화를 통한 동맹관계 강화,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취해진 것임
- 이제까지는 일본이 조달하는 일부 전투기에 한해서만 날개 및 엔진부재 등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미군납품용에도 일본산 부품이 사용되게 되면 납품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일본 방위성의 주요 장비품 등의 계약액은 2012년도에 6,970억엔으로 20년 전에 비하여 약 20% 감소
  - 2011년 가을 이후, 50년 이상 계속된 일본의 전투기 생산도 중단, 20여개에 달하는 부품업체들이 전투기사업에서 철수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만큼, 수출허용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짐
- 미국의 록히드·마틴에 의하면, 미군 및 공동 개발 국가에서 조달 예정인 F35 전투기는 3,000기를 넘어 많은 기업들부터 부품조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게다가, 일본기업들이 F35 기체 및 엔진조립라인을 일본 내에 설치하는 동시에, F35의 장기간 수리·보수 수요가 예상되는 부품을 일본기업이 담당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부품제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위성의 조달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 5 한국관련워치

### □ 현대자동차의 급성장에 제동

- 현대자동차가 작년 3/4분기, 4/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급성장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
  - 엔고에서 원고로 반전 등을 배경으로 한 수출채산성 악화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해외 판매를 지탱해준 내수시장의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
- 한국 주식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주가도 7일 종가기준 21만 6,000원으로 작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5월에 비하여 20%나 하락, 12조 규모의 시가총액이 사라짐
  - 주가하락 이유는 원고로 인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임
- 더욱이 주식시장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환율의 영향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아성이었던 내수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임
  - 최근 일본차를 비롯한 수입차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성숙에 따른 소비자들의 생활스타일 변화와 엔저를 배경으로 한 일본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인하를 들고 있음
-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국내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해외 판촉 재원으로 충당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것
  - 2005년 이후 7년간 세계 판매대수를 배증시킨 데는 FTA 외에도 이 같은 국내 이익의 전용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한국시장에서의 내수판매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이 같은 구조도 흔들릴 것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은 분석하고 있음
- 작년 11월 미국에서 연비성능의 과장표시 문제가 표면화된 점도 현대자동차의 기업이미지를 추락시킨 한편, 신정권의 차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배려 요구 등으로 앞으로 부품조달 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점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